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

8/18 월요일

아침의 누림고후 4:3-4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골 1:15-16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 12:31

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요 14:30

30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 16:11

11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엡 2:2

2 그대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부터 7 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적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비해, 보배는 우리의 내적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밖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고, 안으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하고 총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정의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 말해 준다(고후 4:4, 골 1:15). ...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 장 18 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셨다는 뜻이다. ...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있는 인격,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표현되신다. 하나님의 표현이신 이 살아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이라는 용어들이 다 서로 동격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놀라운 인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형상이시고, 형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영광이시고, 영광은 복음이며, 복음은 빛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형상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보여 준다.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고,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그분의 형상도 사라진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아님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로,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영광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 장 3 절로 확증된다. 넷째로,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5:42, 8:35, 11:20, 17:18).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전파한다. 그러나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살아 있는 인격이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다섯째로, 복음은 빛 곧 빛 비춤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며 빛난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복음은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에게 왔으며, 이러한 빛 비춤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비추어 들어오셨다. 많은 믿는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상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존재에서 지워 버리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우리 안으로 비추어지면 영원히 우리 속에 남는다. 이러한 빛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영광이며, 이 영광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러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안으로 비추어진 것은 살아 있는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3-1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8/19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4:30

30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고후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히 1:1-3 (1-2)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요 1:17-18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빛을 비추어 낸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빛날수록, 이 영광은 더욱더 우리 존재를 관통하고 적신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불태우고 삼킬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어 낼 것이다. 이렇게 빛을 비추어 내는 것은 가르침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비추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빛나고 계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비추실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비춤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누린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덮고 있는 너울들은 그들을 매우 과민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약간만 건드려도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과민한 이유는 간교하고 예민한 자인 사탄이 그들의 생각 안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오늘날 너울로 덮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안에 잠복해 있다. 그리스도 안의 매우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여전히 너울로 덮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우리는 너울들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간교한 자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너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심지어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너울로 사용할 수 있다. 로마서 7 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까지도 사탄의 손에서는 너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높은 영적 은사까지도 우리의 이해력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너울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 장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4 절에서 그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고 말한다. 이 시대의 신은 사탄이다. 눈이 먼 사람들이나 너울로 덮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에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신은 사탄이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에게 경배한다. 미개하든 높은 문화 수준을 가졌든,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 길거리나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교파 건물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는 거의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너울이 사람들에게 겹겹이 덮여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상을 본 사람들을 오히려 유죄판결 한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살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 계시는 우리가

관념들을 떨쳐 버릴 때에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이 시대의 신을 패배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 이외의 그 무엇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고 저의 모든 관념을 버립니다. 저는 당신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는 계시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너울이 벗어질 것이고 이 시대의 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입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빛이 여기에 있고 또 비추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이 다른 많은 것을 향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겹의 너울로 덮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대의 신이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이 어두워지고 눈멀고 굳어져서 성경을 읽고 메시지들을 들어도 계시를 받을 수 없다. 오, 우리에게 얼마나 계시가 필요한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4, 57-58, 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4

8/20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2:10

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4:5-6, 10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 2:7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63:2, 5

2 성소에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5 제 혼은 기름진 것으로 채워진 듯 만족하며 제 입은 기뻐 외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져온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 곧 놀랍고 보배롭고 경이로운 보배를 갖게 되었다. 약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우리 안에 빛 비추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 지극히 귀한 보배가 가치 없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8-13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보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다. 바로 이 보배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4 장 7 절에서 '이 보배'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 말하는 6 절과 연관된다. 6 절에서 '얼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2 장 10 절에서 '인격'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 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한 면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질그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의 존재의 표정을 주목할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온 우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옛 인격을 버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눈언저리를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대한 달콤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빛날 것이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그분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곧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탁월하시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보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었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6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6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전파한 복음이 교리나 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얼굴을 가진 사랑스러운 인격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러한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끌어 온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매혹되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9-1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8/21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9:21

21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8:9-10, 15, 23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고린도후서 4 장 4 절은 네 가지, 곧 빛과 복음과 영광과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6 절은 계속하여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빛 비춤으로 귀결된다. ...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옛 창조물이 산출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빛 비춤이 질그릇인 우리 안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6-1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시며,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리스도(요 1:18)를 알게 된다.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한다. ...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이다. 주님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접촉하는 데로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한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내적인 빛 비춤을 갖는다. 언제든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비추어 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빛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끌리어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실들에 관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들 안에 귀한 보배로 분배되신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처럼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7-138 쪽)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었다. ...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릇은 병이나 컵과 같은 것이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릇이라는 이유로 기뻐다. 나는 자신에게 “사람아, 너는 꼭 병과 같다. 너의 입은 병의 주둥이를 닮았다. 병의 목적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진 그릇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관념이 아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처음으로 제시하고, 로마서 9 장에서 바울이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 바울은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과 말다툼하려고 합니까? 그대는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여러 그릇을 만들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로마서 9 장 21 절과 23 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48-1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3 권,

장로훈련,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4 장

8/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9:23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훈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전 2:10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2:5-6, 13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았다. 요한복음 6 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먹을 수 있고, 자신이 생명의
떡(35 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는 것을 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안에 담길 뿐 아니라 동화되어 우리
자신의 요소가 된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영양사들은 “여러분이
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단지 담는 그릇만이 아니라 먹는
그릇이자 우리가 먹는 것을 동화하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을 먹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동화하는 그릇들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되신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로마서 9 장 21 절과 23 절은 우리가
귀하게 쓰일 그릇들이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공훈의 그릇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 어느 날 나는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고, 영광 안에 거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공훈의
그릇들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 두는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타고난 생명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며 항상 자신을 그분께 활짝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올바른 상태이다.
... 우리가 이것을 열쇠로 삼아 다시 한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는다면, 이것이 그의
서신서들에 담겨 있는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교통한 것에 대한 체험
안으로 들어간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주님,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극도로 섬겨야
합니다. 저의 마음과 존재는 당신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공훈과
당신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제가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놀라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 그릇은 다만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을 뿐이며, 등잔대는 오직 기름으로 다시 채워지기 위해 자신을 열어 둘 수 있을 뿐이다. ... 등잔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름을 받아 빛을 비추기 위해 자신을 열 뿐이다. 등잔대는 기름으로 채워지고 그런 다음 무언가를 표현한다. 즉 빛을 비춘다. 사실상 등잔대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항상 열어 둔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매우 깨어 조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 두라. 그분께 날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께 닫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열어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계시된 근본적인 노선을 본다면, 이 노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릇이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릇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그릇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자신을 열어 두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유 의지의 원칙을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열어 두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두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열어 두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 장, 367, 369, 372-3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22 장

8/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엡 3:14-21 (16-19)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질그릇에 불과하며, 죄악되고 타락했고 비천하다. 이러한 존재인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거나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낼 능력이 없다. ... 비록 우리는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귀중한 보배를 우리 안에 비추어 넣으셨다. 이제 이 보배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4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질그릇 안에 놀라운 보배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분배를 통해 탁월한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셔서, 가치 없고 약한 그릇들인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고후 3:6)로 조성하신다.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살아 있고 활동적인 보배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 이 보배는 사도들이 복음을 비추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자 힘의 근원이다.

우리는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그릇은 마치

오늘날의 사진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빛을 번쩍 비추실 때, 피사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진기 안으로 들어오신다. ... 외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 보배에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은 탁월하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탁월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며, 밖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히 1:3). 다시 말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지 구속자 그 이상이신 분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 최고로 탁월하신 분을 받아들였다. ... 지금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탁월한 보배이시고, 우리 밖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표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는 보배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41-142 쪽)

은혜는 ... 사도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부활 생명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다. 사도들이 죽음 아래 머물 때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있었고, 그럴 때 은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넘쳤다. 그

결과 또한 감사가 매우 넘치게 되었다. 바울이 고난에 주의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죽을 때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된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것이 사도들이 살았던 생활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인데, 이러한 생활은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보배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놀라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들의 사역을 갖고 있다. 그들의 사역은 전적으로 영 안에 있는 것이자 실지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 이것이 신약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다. ...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사역을 가진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역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참으로 사역자들과 사역은 하나이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02 쪽, 메시지 30, 2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40 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장

8/24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1:2-3, 10-11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2:3-5, 14, 17, 20-21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